

일, 일본놈의

작자 미상

일, 일본놈의
이, 이등박문(伊藤博文)이가
삼, 삼천리 강산에
사, 사주(四柱)가 나빠서
오, 오대산(五臺山)을 넘다가
육, 육혈포(六穴砲)를 맞고
칠, 칠십먹은 늙은이가
팔, 팔자(八字)가 사나워
구, 구두발로 채워
십, 십조가(十字街)리가 났네

해설 :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초대통감 이등박문을 조선에 파견하여 본격적인 식민지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등박문은 1905년 11월 일본군을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한 가운데, 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 등 을사오적과 야합하여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두에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사살한 민족의 형적 이등박문의 죽음은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의 기개를 크게 떨친 쾌거였다.

작자 미상의 위 시는 당대 민중의 언어로 표출한 풍자시의 한 전형이다. 만주 하얼빈 가는 길을 오대산으로 넘어갔다는 민중의 해학이 번뜩인다.

2010 07*08

통권 52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04

권두언

국치 1백주년을 맞이하며

| 김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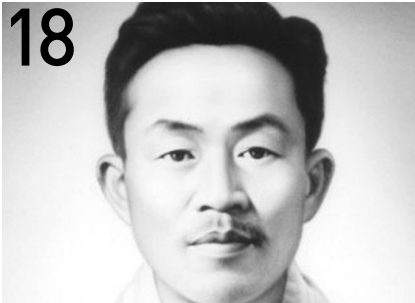
06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1_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 - 강압과 분할통치, 그리고 수탈

| 김용달

18



12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2_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18

독립운동_

일우(一宇) 김한중(金漢鍾)과 대한광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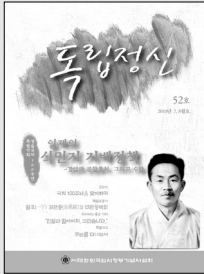
32



24

다시보는 좋은 기사

친일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재승, 이일선, 김동완
 학생편집위원 | 홍윙희, 박상희, 박관우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2 특별기고
 쿠바를 다녀와서
 | 김자동

34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거친 녀석들〉과 〈발키리〉, 영화에 있어서의 역사
 | 이두희

38 청년특집 Campus Life
 실사구시
 | 최현욱

42 독립정신 이모저모

46 임정서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 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 회고록



국치 1백주년을 맞이하며



김 자 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금년은 여러 면에서 특이할 만한 해이다. 무엇보다도 8월29일은 ‘국치일’이라고 부르는 일제에 의한 한국병탄 1백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백주년이고 그리고 강우규 의사의 순국90주년도 되는 해이다. 해방과 분단의 65주년, 동족이 서로를 죽인 6.25전란 60주년과 남북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결실인 6.15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위에 열거한 이 모든 일이 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한국침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하여 현대적인 국가를 창건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은 ‘약육강식’이 국제적 상습이었던 이 시대의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제도를 모방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습성까지 모방하려고 한 것 같다. ‘유신개혁’의 주역들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삼았는데 여기에 말한 ‘강병(强兵)’이란 방어적인 뜻도 지녔겠지만 침략을 구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그때 이미 적어도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비교적으로 희박한 중국의 동북지방에 침을 흘렸을 것이며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허약한 조선을 그들의 첫 침략대상으

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군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결국 망국을 자초한 것은 왕조 자체였다. 1894년 1월 전북정읍의 고부민란으로 비롯된 동학혁명은 3월에 이르러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인 전면궐기를 하여 전라북도 전역을 휩쓸고 4월말에 이르러서는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자력으로 반란의 진입이 어려워지자 겁먹은 조정은 청나라에 지원병력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파병됐다. 결국 우리 조정이 외군을 불러드린 것이다.

외세의 출병구실을 없애기 위하여 조정에 대하여 폐정개혁안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자진해산할 뜻을 밝혀 정부 측이 여기에 응하여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 6월 10일 화약이 체결되어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하며 사태의 진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정부가 약속한 폐정개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개혁사업에 착수했다. 전쟁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철군은커녕 보다 많

은 원군을 보내며 6월 21일에는 왕궁을 점령하는 한편 아산만에서 청군을 기습공격하여 청일전쟁이 발발된다.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일본은 타이완을 식민지로 획득했으며 한국은 청으로부터 명목상 완전 독립하여 대한제국이 성립됐다. 그러나 일본군은 계속 주둔하고 있었으며 국정에 대한 간섭을 자행했다. 이제 일본에 대한 국제 견제 세력은 제정러시아뿐이었다.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영국과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로 한국의 일본식민지화를 암묵리에 두고 있는 형편이었다. 영미를 등에 업은 일본은 결국 한반도의 식민화를 위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일전쟁때와 같이 일본은 또다시 선전포고 없는 기습작전으로 1904년 2월 8일 중국의 요동반도 남단의 러시아 조차지인 뤼순군항을 기습공격하였으며 이어 인천항외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군함들도 기습격침시켜 10일 선전포고에 앞서 초기의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단독으로 러시아에 승전하기는 어려웠으나 영국과 미국의 무기 공급 및 차관 등의 지원으로 계속 전과를 올렸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재'로 정전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미국은 일본과 밀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한국병탄을 사전 승인했다. 이로부터 105년전의 을사보호조약과 그 2년 후의 정미조약으로 한국의 운명은 거의 결정된 셈이었다.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여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나 무장의 격차 때문에 1909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전멸되어 일본의 한국병탄은 막을 길이 없게 되었다. 1894년의 외국군을 불러들인지 불과 16년만에 왕조는 멸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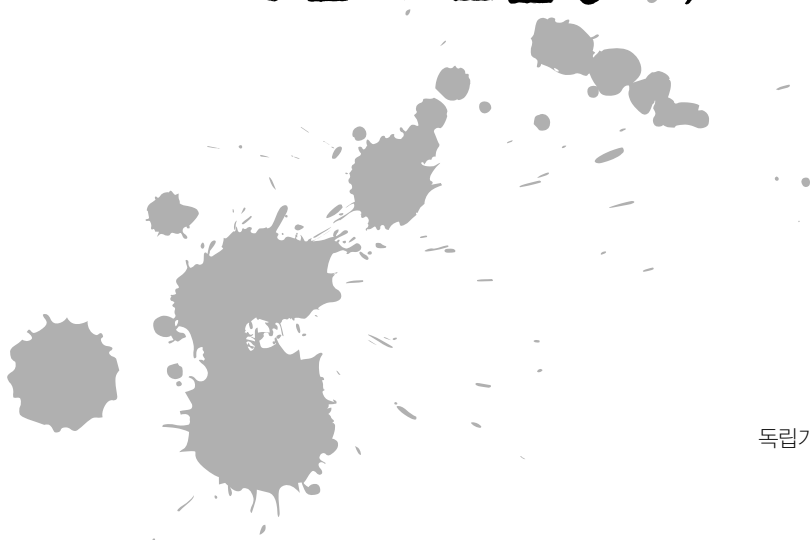
제2차 대전에서의 일본 패배로 '해방'을 맞이했

으나 우리의 운명은 이제 진주한 승전국에 달리게 된다. 소련이 미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에 동의함으로써 이제 나라는 만65년간이나 분단된 상태에 처하게 됐다. 그리고 그때 진주한 미군은 아직까지 주둔하고 있다. 그런 형편하에서 한국이 이제 독립국가로서 유엔에도 가입하고 적어도 내정에 있어서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외교노선이 미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아직 미국이 갖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드디어 미국과 작전지휘권을 2012년까지 환수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사실 이것은 박정희정권 이래 한국정부가 거의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현정부는 이 권한을 오히려 받아드리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외국군의 주둔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더라도 적어도 작전지휘권을 찾아야 하겠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이의가 없을 것으로 믿어졌는데 믿어지기 어려운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어느 나라에서든 보수층이 주권문제에는 보다 적극적인데 이 나라의 보수는 참으로 기이한 존재이다.

결국 이 나라의 보수층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부일협력하던자들이 추종의 대상을 미국으로 바꾸면서 생긴 외세의존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전시작전권의 인수를 굳이 연기하려는 것은 지난 정권의 행적을 무조건 반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주권을 회수하는 문제에까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치 1백주년을 맞이하여 참된 독립국가로서의 위치가 확립되도록 힘쓰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9)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

- 강압과 분할통치, 그리고 수탈



김 용 달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위원

1.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특징은 한국민족말살 정책에 있었다. 일제는 제국주의 본연의 경제수탈과 한국 지배의 특징인 민족말살정책을 식민지 지배의 기조로 삼았다. 일제 35년 동안 표면적인 통치정책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러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 강화되었다.

일제는 1910년 이른바 '한일병합조약'의 조약문과 일왕의 조서 등을 통해 한국의 병합은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양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침략성을 호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이후 일제는 한국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수탈로 일관하였으며, 그 기저에는 항상 민족말살정책이 식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경술국치 직후 일제의 식민지 통치이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1911년 8월에 발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일제는 교육 목표를 ‘충량한 제국신민의 육성’에 두었다. 바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저항 없이 순응하는 한국인을 만들겠다는 민족 말살 방침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한국민족 말살 방침은 3·1운동 직후인 1919년 8월 19일 일왕이 한국인과 일본인을 ‘천황의 적자(嫡子)’로서 전혀 차별하지 않고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입장에서 통치하겠다는 요지의 조서를 발표하면서 공식화되었고, 이후 한국 통치의 기본 입장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어 1920년 일본 내 정당세력을 대표하는 하라(原) 수상이 한국에서의 식민통치 원칙으로 ‘내지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를 내세웠는데, 이는 일본의 법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언어를 비롯한 모든 부분을 식민지인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민족말살 방침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민족말살 방침에 입각한 식민통치는 1930년대 전반 우카키(宇垣)총독이 ‘내선융화’를 외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내선융화라는 표현은 이미 1920년대 사이토(齋藤) 총독에 의해서도 표명된 것이었다. 하지만 사이토가 말한 내선융화론은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한 일반론적인 의미에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반해 우카키가 내세운 내선융화란 한국인과 일본인이 일체가 된 ‘신일본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한 그릇에 담겨 있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가까운 한국의 민심을 교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더 나아가 1936년 8월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南)는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내선일체’론을 한국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이후 모든 식민통치는 여기에 입각하여 한국의 민족과 문화를 말살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는 민족의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만이 한국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반발과 반항을 희석시키고 비판의식을 마비시켜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일제는 한국을 어떻게 수탈하였나?

1) 식민 통치와 수탈 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조사사업

한국강점 직후인 1910년 9월부터 식민지 수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제가 실시한 것이 바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이다. 토지조사사업은 겉으로 근대식 등기제도를 채용한 토지소유권

의 법인을 표방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유지 창출을 통한 식민지 수탈기반의 마련과 안정적 식민지 지배를 위한 통치기반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다.

토지조사사업 가운데, 식민지 수탈 기반의 마련이라는 첫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술책은 토지신고제를 채택한 것과 구(舊)양안을 토지소유권 사정 1차 자료로 채택한 것이었다. 이로써 일제는 1719년 이후 국유지와 미간지에 발생된 농민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많은 토지를 국유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 1919년 2월 현재 102만여 정보의 미간지를 포함한 총 137만여 정보의 토지를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만들었다. 일제는 이 토지를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불이흥업주식회사 등 식민농업회사와 일본인 이주민에게 불하하여 소작제로 경영케 함으로써 식민지 농업수탈을 감행해 갔다.

안정적 식민지 지배를 위한 통치기반의 구축이라는 토지조사사업의 둘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지주 우대정책이었다. 일제는 기존 봉건지주의 기득권을 인정한 위에 소작지에 발생한 소작인의 채권적 권리인 도지권(賭地權)을 부정하여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강화해주었다.

나아가 소작지에 대한 소작인의 관습상의 경작권마저 부정하여 지주의 고율 소작료 징수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로써 봉건 지주는 온전히 식민지 지주가 되어 식민통치체제 안정의 사회경제적 버팀목이 되었다. 반면에 농민 대중은 국유지에 형성된 사적 소유권과 소작지에 발생한 도지권, 그리고 미간지를 개간하여 소유할 수 있던 개간권마저 상실하여 자영농민으로의 성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소작지를 경작할 수 있던 관습상의 경작권과 국유임야에서 땀감이나 퇴비의 재료를 구할 수 있던 입회권(入會權)조차 박탈되었다. 이제 한국 농민은 완전 무권리 상태의 소작농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대규모의 토지약탈과 농민 권리의 부정은 한국 농민대중의 항일의식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조건은 3·1운동이 발발하자 농민대중이 자발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하고 대중운동으로 확대시켜 간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2) 미곡수탈을 위한 산미증식계획

일제의 쌀값 안정과 식민지지주제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 미곡 수탈정책이 바로 산미증식계획이다. 산미증식계획은 1918년 8월 동경에서 발생한 ‘쌀소동’에서 단적으로 나타난 일제의 식량·미가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안된 것으로, 한국을 식량공급기지로

“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대규모의 토지약탈과 농민 권리의 부정은
한국 농민대중의 항일의식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조건은 3·1운동이 발발하자
농민대중이 자발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하고 대중운동으로 확대시켜 간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

확정하는 식민지 농업정책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수리시설 확충을 통한 토지개량사업과 품종개량 및 비료사용 증가에 의
한 농사개량사업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토지개량사업에 치중하여 많은 자
본이 투입되었다. 수리조합은 소수 대지주들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는
데, 조합이 설립되면 수리시설이 필요 없는 지역도 수리구역으로 강제로 편입되어 조합비를
내야 했다. 특히 수리조합비는 소작인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게다가 수리조
합비를 내지 못하는 중소토지 소유층인 자작농과 자소작농의 경우에 대지주들에게 극히 저
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넘기는 일도 많아져 농민층의 하향 분해는 더욱 심화되었다.

농사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본인 입맛에 맞는 소위 ‘우량품종’ 보급과 화학비료
의 사용 증가 역시 농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 주었다. 특히 일제는 산미증산계획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식량 수탈을 강행하였다. 그것은 1920년에서 1922년 사이의 미국 평균
생산량과 일본으로의 반출량을 1930년에서 1932년 사이의 평균치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 생산량은 1,472만 석에서 1,713만 석으로 241만 석 증가한 반면, 미국 반출량은
295만 석에서 725만 석으로 430만 석의 증가를 보인다. 생산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반면에 반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700여만 석이라는 미국 반

출량은 일제가 계획 당초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반출량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생산량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반출량은 계획대로 강행하는 약탈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식량을 빼앗아 일본인의 배를 채우는 강도 행위나 다름없었다.

산미증식계획은 대지주들을 정책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미곡의 증산과 일본으로의 반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을 끌어들이 정치적 연합을 도모하고, 농민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며 수탈하는 것이 필요했던 때문이다. 따라서 산미증식계획은 일제의 식량문제 해결과 동시에 민족분열정책을 뒷받침하는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심화시켜 갔던 것이다.

3) 침략전쟁을 위한 인적·물적 수탈

1937년 7월 중일전쟁,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에 혈안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일제의 침략전쟁 지원을 위한 병참기지로 개편되었다.

우선 일제는 군수품 조달을 위해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고, 중일전쟁 이후 군량 확보가 시급해지자 '조선증미계획'을 실시하여 미곡 증산계획을 재개하였다. 아울러 식량의 소비 규제를 위해 배급제도를 실시하였고, 더 나아가 미곡공출제도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농민은 생산한 쌀을 일제에 마을단위로 강제로 팔았고, 식량을 배급받아 끼니를 이어가야 했다.

또한 일제는 전쟁물자의 조달을 위해 금속제 그릇을 강제로 공출하여 갔다. 농기구·식기·제기는 물론, 심지어 교회나 사찰의 종까지도 징발하여 전쟁무기 제작에 이용하였다. 나아가 물적 수탈뿐만 아니라 전시동원체제를 갖추어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처음에는 군대보충을 위해 육군특별지원병제도(1938)를 실시하다가 이를 징병제도(1943)로 바꾸어 패전할 때까지 약 20만 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징집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지원병제도(1943)를 실시하여 약 4,500명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이밖에도 일제는 전시노동에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1939년 국민징용령이 실시되면서 1백만 명 이상의 한국 청장년들이 전시노동자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동남아시아·사할린 등지로 강제 동원되었다. 이들은 광산 및 비행장·군수공장·철도 등의 공사장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으며, 공사가 끝난 뒤에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무더기로 학살되기도 하였다.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어린 학생들을 근로동원이라 하여 군사

시설공사와 토목공사에 동원하였으며, 여성들도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사에 동원하였다. 더욱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징발하여 일본군의 성 노리개로 삼는 비인도적인 일까지 벌였다.

3. 식민지근대화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식민지수탈론의 시각에서 보면, '식민지근대화론'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일제 식민통치는 우리에게 근대화보다는 오히려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우선 경제적으로 1941년 현재 한국 내의 공업자본의 약 94%가 일본자본이었고, 한국자본은 겨우 6%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농업부분에서는 반(半) 봉건적 식민지 지주제가 일제에 의해 엄호되었으니 일제강점기의 한국 경제는 '근대화'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일제강점기의 한국 사회를 경제논리만으로 이해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경제 이외의 분야가 훨씬 넓고 깊은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통치는 정치적으로 독립협회 이후 추진되어 온 의회 중심, 자유민주주의적 지향을 왜곡시켜 버렸다. 더욱이 일제가 민족분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 성장에 큰 어려움을 주었고, 남북분단의 직접적인 요인을 가져다주었다.

사회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근대화를 향한 시민사회의 육성이 아니라 기본권마저 철저하게 짓밟은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기본권인 생명·신체·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권, 시민저항권, 평등권, 국민주권, 국민참정권 등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고, 이를 가지려는 한국인들을 일제는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근대화에 큰 장애가 된 것이다.

문화적으로 일제가 근대화를 방해한 사실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근대화의 요소 가운데 민족문화의 발전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일제는 철저하게 이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서 황도주의와 황국사관을 주입하여 한국민족을 '황국신민'으로 만들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였다.

아직도 일본 우익은 반성하기는커녕 식민통치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근대화론에 한국의 일부 학자들까지도 동조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200여 명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무효'란 내용의 성명을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전반부에 병합 당시의 역사에 관해 긴 설명을 한 것은 일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한일병합을 근대 역사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실제 역사와 정반대의 사실을 알고 있음을 우려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초안을 잡았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이 성명의 전문이다.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이 지상에서 말살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에 병합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10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그 병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한국병합조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 일본 양국의 정부와 국민이 공감하는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야말로 두 민족 간의 역사문제의 핵심이며, 서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본이다.

그간 두 나라의 역사학자들은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침략정책, 일본군의 거듭된 점령 행위, 명성왕후 살해와 국왕과 정부요인에 대한 협박,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항거를 짓누르면서 실현시킨 결과란 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근대 일본 국가는 1875년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 포대를 공격,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벌였다. 이듬해 일본 측은 특사를 파견,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고 개항시켰다. 1894년 조선에 대규모의 농민봉기가 일어나 청국 군이 출병하자 일본은 대군을 파견하여 서울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왕궁을 점령하여 국왕, 왕후를 가두고 이어 청국 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한편으로 이에 대항하는 한국의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청국세력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지만 삼국간섭(三國干涉)으로 승전의 대가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되돌려 놓게 되었다. 이런 결과에 부딪혀, 일본은 그간 한국에서 확보한 지위마저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국왕에게 공포감을 주고자 왕비 민씨를 살해하였다. 국왕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보호를 구하게 되자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의화단(義和團) 사건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게 된 후, 1903년에 일본은 그 대신 한국 전토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을 러시아에 요구하였다. 러시아가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전쟁을 결심하고 1904년 전시(戰時)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진입시켜 서울을 점령하였다. 그 점령군의 압력 하에 2월 23일 한국 보호국화의 제1보가 된 '의정서'의 조인을 강요하였다. 러일전쟁은 일본의 우세승으로 결말이 나고, 일본은 포츠머스강화조약에서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게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곧바로 천황의 특사로 서울로 와서 일본군의 힘을 배경으로 위협과 회유를 번갈아 1905년 11월 18일에 외교권을 박탈하는 '제2차 한

일협약'을 체결시켰다. 의병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고종황제(高宗皇帝)는 이 협약은 강제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친서를 각국 원수(元首)들에게 보내었다.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낸 일로,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에 대한 고종황제의 책임을 물어 그의 퇴위를 강요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와 동시에 7월 24일에 '제3차 한일협정'을 강요하여 한국의 내정에 대한 감독권도 장악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의병운동이 크게 일어났지만, 일본은 군대, 헌병, 경찰의 힘으로 탄압하다가 1910년에 '한국병합'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였다.

일본국가의 '한국병합' 선언은 1910년 8월 22일의 병합조약에 근거하여 설명되고 있다. 이 조약의 전문(前文)에는 일본과 한국의 황제가 두 나라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상호의 행복과 동양 평화의 영구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병합이 최선이라고 확신하고, 본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제1조에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한다'고 기술하고, 제2조에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前條)에 서술되어 있는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적으로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일을 승낙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힘으로 민족의 의지를 짓밟은 병합의 역사적 진실은, 평등한 양자의 자발적 합의로, 한국 황제가 일본에 국권 양여를 신청하여 일본천황이 그것을 받아들여, '한국병합'에 동의했다고 하는 신화로 덮여 숨기고 있다.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

일본제국이 침략전쟁 끝에 패망함으로써 한국은 1945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

어났다. 해방된 한반도의 남쪽에 수립된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에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 때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으로 약칭)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 한, 일 양국 정부 간에 서로 달랐다.

일본정부는 병합조약 등은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 맺어졌다'는 것으로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유효였지만, 1948년의 대한민국 성립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었던 불의부당한 조약은 당초부터 불법 무효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병합의 역사에 관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하여 뒤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병합조약 등은 원래 불의부당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당초부터 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도 완만하나마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은 전진해왔다. 새로운 인식은 1990년대에 들어서 고노(河野) 관방장관 담화(1993), 무라야마(村山) 총리 담화(1995), 한일공동선언(1998), 조일(朝日) 평양선언(200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총리담화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막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하였다.

또한 무라야마 수상은 1995년 10월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병합조약'에 관해 '쌍방의 입장이 평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노사까(野坂)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병합조약은... 극히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인정하였다. 무라야마 수상은 11월 14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병합조약과 이에 앞선 한일 간의 협약들에 대하여 '민족의 자결과 존엄을 인정하지 않은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마련된 토대가, 그 후에 여러 가지의 시련과 검증を 거치면서, 지금 일본정부가 공

식적으로 병합과 병합조약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회도 하와이 병합의 전제가 된 한 하와이 왕국 전복의 행위를 100년째에 해당하는 1993년에 '불법한(illegal) 행위'였다고 인정하고 사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근년에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와 '식민지 범죄'에 관하여 국제법 학계에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제 일본에서도 새로운 정의감의 바람을 받아들여 침략과 병합,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병합'100년을 맞아 우리는 이러한 공통의 역사인식을 가진다. 이 공통의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역사에서 유래하는 많은 문제들을 바꾸어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화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한층 더 자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통의 역사인식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과거 100년 이상에 걸친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자료는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식민지 지배의 시기에 기록문서 작성을 독점한 일본정부 당국은 역사자료를 적극적으로 모아서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죄는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되고, 용서는 베풀어져야 한다. 고통은 치유되어야 하고, 손해는 갚지 않으면 안된다. 관동대지진 중에 일어난 한국인 주민의 대량 살해를 비롯한 모든 무도한 행위는 거듭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국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강제동원 노동자, 군인 및 군속에 대한 위로와 의료지원 조치에,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대립하는 문제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응시하면서, 뒤로 미루지 말고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도 이 병합 100년이라는 해에 진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우호에 기초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취지를 한국, 일본 양국의 정부와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엄숙히 받아들여주기를 호소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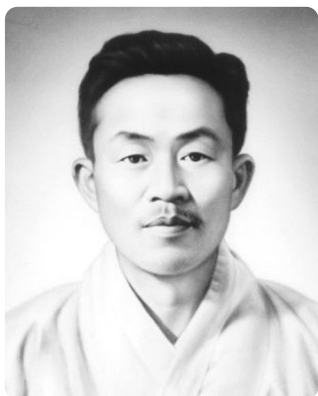
한국 측 109인

강만길* 강천석* 고광현* 고 은* 권태억 구정모 김정희* 김기석 김도형 김병익 김성국 김
언호 김영일 김영호* 김용구 김용덕 김용섭 김윤환 김종규 김지하* 김진현* 김창록* 김태
영 김평우 김현 김호기 김화경 김훈 김희곤 나종일 남시옥* 노명호 노태돈 도진순 박맹호
박명규 박병호 박원순* 박재승 박유철 배인준* 백낙청* 백승현 백영서 박우희 박인규 서중
석 성대경 송영승 송호근 신경림 신영복 신용하* 안병우 안병욱 안철수 양민호 엄창욱 염무
웅 오세영 오연호 유재천 윤병석 윤형두 이근관 이기상 이기석 이기웅 이만열* 이문열 이상
찬 이성무 이시재 이어령 이원덕 이장희* 이태진* 이효재 이학영 임옥상 임진택 임철순 임
형택 임현영 임현진 장만기 장인성 장충식 정성현 정재정 정창열* 정태인 조 광 조동걸 조
동성 조동일 조희연 주종환 차하순 채웅석 최원식* 최장집 한경구 한상진 한수산 한승헌 허
남진 허수열 황석영 (*는 발기인)

일본 측 105인

荒井獻 荒井信一* 井口和起* 石坂浩一* 石田 雄 石山久男 李順愛 出水 薫 李成市*
李鍾元* 板垣雄三 井筒和幸 井出孫六 伊藤成彦 井上勝生* 今津 弘 上杉 聰 上田正昭
内田雅敏 内海愛子* 大江健三郎 太田 修* 岡本 厚* 沖浦和光 小田川興* 糟谷憲一*
鹿野政直* 加納實紀代 川村湊 姜尙中 姜德相 木田獻一 木畑洋一 君島和彦 金石範 金文
子 小林知子 小森陽一* 坂本義和* 笹川紀勝 佐高 信 澤地久枝 重藤 都 清水澄子 東海林
勤* 進藤榮一 末本雛子 鈴木道彦 鈴木伶子 關田寛雄 徐京植 高木健一 高崎宗司* 高橋哲哉
田中 宏 俵 義文 趙景達* 鶴見俊輔 外村 大 仲尾 宏 中塚 明* 中野 聰 中村
政則* 中山弘正 永久睦子 成田龍一 朴 一 林 雄介 原 壽雄 針生一郎 <木+通>口雄一
飛田雄一 平川 均 深水正勝 藤澤房俊 藤永 壯 福山眞劫 古田 武 布袋敏博 前田憲二
松尾尊兒* 水野直樹* 三谷太一郎 南塚信吾 宮崎 勇 宮嶋博史* 宮田毬榮 宮地正人 宮田節
子* 文京洙 百瀬 宏 山口啓二 山崎朋子 山田昭次* 山室英男* 梁石日 油井大三郎 吉岡達
也 吉澤文壽 吉野 誠 吉松繁 吉見義明 李進禧 和田春樹* (*는 발기인)

일우(一字) 김한중(金漢鍾)과 대한광복회



▲ 일우(一字) 김한중(金漢鍾)의사

경술국치 이후 1910년대 독립운동은 한말 국권회복운동을 계승하고 있었지만, 여러 면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우선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양대 흐름이었던 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이 합류해 간 것이다. 두 운동 모두 국권회복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 서로간의 의견차와 반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개화 지식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계몽운동자들은 의병운동을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으로 인식하였고, 척사유림이 주류를 이루었던 의병운동자들은 계몽운동을 ‘친일 개화운동’ 정도로 치부하였다. 비록 이러한 인식은 점차 해소되어 갔

지만, 그 깊은 골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경술국치에 따른 일제의 한국 강점이라는 상황 변화는 민족독립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부상시켰다. 이제 민족의 독립 없이는 ‘유교사회의 재건’도, ‘민족의 근대화’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10년대 헌병경찰을 앞세운 일제의 가혹한 무단정치는 독립운동의 싹조차 도려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일은 민족 독립의 역량을 모아 기르는 것이었고, 그러한 일에 계몽운동계열이니 의병운동계열이니 하는 분파가 따로 있을 수 없었다. 민족 독립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두 계열의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단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1910년대 독립운동 비밀결사였다. 때문에 비밀결사는 운동 주체는 물론 이념과 투쟁 방략의 측면에서도 의병적 성격과 계몽운동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다. 즉 운동 이념에서는 의병계열이 계몽운동계열의 혁명적 정치 이념, 즉 공화주의를 받아

들었다. 반대로 투쟁 방식은 계몽운동계열이 의병운동의 혁명적 투쟁방식, 즉 무장투쟁을 수용한 것이다. 그같은 토대 위에서 1910년대 비밀결사는 독립운동전략으로 의병의 무장투쟁전략과 계몽운동의 실력양성전략을 조합한 독립전쟁준비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독립전쟁준비전략은 우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일제와 독립전쟁을 펼쳐 민족독립을 쟁취한다는 장기전략이었다. 1910년대 비밀결사로서 이러한 독립전쟁준비전략을 실행한 대표적 독립운동 단체가 대한광복회였다.

대한광복회는 조선국권회복단과 풍기광복단이 통합되어 결성된 단체였다. 조선국권회복단은 1913년 1월 대구 안일암(安逸庵)에서 계몽운동 및 독립운동 지원 단체로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계몽운동계열 인사들과 의병계열 인사들이 함께 조직한 비밀결사였다. 그리하여 계몽운동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 국외 독립운동단체와의 정보 연락, 그리고 군자금 조달 등 독립군 지원활동을 펼쳐 갔다. 하지만 한말 의병장 허위의 제자인 박상진과 정운일, 김재열 등 국권회복단의 의병계열 인사들은 이를 보다 강력한 혁명적 독립운동단체로 개편할 것을 구상하여 갔다. 그것은 1910년대 조선토지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주층이 민족성을 상실하여 갔기 때문이었다.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은 그간 토지에 발생하여 성장해 왔던 농민대중의 여러 권리를 부정하면서 지주위주로 시행되고 있었다. 때문에 지주층은 식민통치체제가 자신들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나쁘지만은 않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래(舊來)의 봉건 지주층은 일제 식민통치체제의 사회 경제적 버팀목인 식민지 지주로 재편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독립운동단체의 군자금 모집 활동에도 영향을 끼쳐 순리로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할 수 없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박상진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①반민족적 지주들을 응징함으로써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고, ②무력적 방법으로 군자금을 모금하여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고, ③여기에서 독립군을 양성하여 민족혁명(민족독립)을 달성한다는 계획 아래 혁명적 독립운동단체의 결성을 추진해 간 것이다.

그 결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의병계열 인사들은 1915년 7월 풍기광복단과 제휴하여 대구에서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이 때 제휴한 풍기광복단은 채기중, 유창순, 한훈 등의 주도로 1913년 결성한 독립운동 비밀결사로, 의병출신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조직원들의 성향과 투쟁방략은 조선국권회복단의 의병계열 인사들과 일맥상통하였기 때

문에 대한광복회의 탄생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광복회는 “대한의 독립국권을 광복하기 위해 죽음으로 결의하고, 구적(仇敵) 일본을 완전 구축하기로 천지신명께 맹세한다.”고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강령을 마련하였다.

- ① 부호의 의연금 및 일인(日人)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 ② 남북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 ③ 종래의 의병 및 해산군인과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 ④ 중국, 아라사(俄羅斯) 등 여러나라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 ⑤ 본회의 군사행동, 집회, 왕래 등 모든 연락기관의 본부를 상덕 태상회(대구)에 두고, 한민(韓滿) 각 요지와 북경, 상해 등에 지점 또는 여관, 광무소(鑛務所) 등을 두어 연락기관으로 한다
- ⑥ 일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隨時), 수처(隨處)에서 처단하는 행형부(行刑部)를 둔다
- ⑦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의 달성을 기한다

뿐만 아니라 비밀, 폭동, 암살, 명령 등 4대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한광복회는 국내외에 거점과 정보 연락망을 구성하여 독립전쟁준비전략을 실천하고자 한 혁명적 독립운동단체임을 알 수 있다.

창립 당시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은 박상진이었고, 부사령은 황해도 평산 의병장으로 용맹을 떨친 이석대였다. 그러다가 이석대가 순국한 1917년 이후에는 김좌진이 맡아 만주에 상주하면서 독립군 양성을 담당하였다. 이후 대한광복회는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1917년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도 일대, 해주를 중심으로 하는 황해도 일대, 보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 일대, 그리고 서울, 삼척, 인천, 용천 등지에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국외에도 조직망을 설치하여 북만주 길림지방에 광복회 지부를 조직하였고, 남만주 서간도 지방의 부민단 또는 신흥학교 등과도 연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이같은 대한광복회에서 박상진, 채기중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충청도지부를 이끈 분이 바로 김한중 선생이다. 선생은 1883년 1월 14일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에서 김재정(金在貞)의 독자로 태어났다. 호는 일우, 자는 경애(敬愛), 본관은 금령이다.

선생의 가문은 대대로 학행이 뛰어나고 충효의 전통을 지닌 전형적인 사대부 집안이었다. 부친 또한 가학(家學)을 이어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으로 집안의 아이들과 인근의 학동들을 교육하는 훈장이었다. 때문에 선생은 어려서부터 부친에게 충효사상을 전수 받으며, 유학을

공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개항 이후 외세의 침탈을 목격하면서 선생과 부친은 척사적 민족주의를 수용해 간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전(前) 참판 민중식이 충남 홍산(鴻山)에서 의병을 일으켜 1906년 5월 홍주성을 탈환하자 선생과 부친도 여기에 동참 하였다. 즉 부친 김재정은 성달영과 함께 소모장(召募將)으로 활약 하였고, 선생 또한 부친을 따라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항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홍주의병이 일본군에 패하자 선생과 부친은 그에 가담하였던 의병장들을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자신의 집에 피신 시키고 재기를 도모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는 모두 충효의 전통을 계승한 행동이었고, 외세의 침탈에 대항하여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자한 척사적 민족주의의 발로인 것이었다.

경술국치 이후 선생은 충청도 지역에서 국권회복운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우선 선생은 사방으로 동지들을 찾아 규합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대한광복회 충청도 지부의 주요한 인적 자원이 되었다. 동지를 규합하던 중 선생은 조선 총독이 부여지방을 시찰한다는 정보를 입수 하고, 그를 처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916년 7월 김경태, 김재창과 함께 선생은 부여의 이철영 집에서 조선총독 암살 계획을 모의하고 추진하여 갔다. 하지만 선생과 동지들은 일경의 가택 수색으로 조선총독 암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각기 피신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바로 이 시기 선생은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이 동지들을 널리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채기중의 소개로 박상진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 1917년 음력 6월경 처음 만남에서 둘은 서로 의기 상통하였던 것 같다. 선생이 대한광복회에 가입하면서 곧 바로 충청도지부장에 임명되고, 그 조직책임을 맡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즈음 박상진, 채기중을 비롯한 대한광복회 지도부는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초 대한광복회가 목적하였던 사업이 지지 부진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대한광복회는 활동자금과 군자금을 부호들의 의연금과 일제의 세금탈취로 마련할 작정이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우편마차를 습격하여 세금을 탈취케 한 적도 있었고, 또 일본인이 경영하는 금광을 습격하려고 계획한 일도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때문에 대한광복회는 군자금을 주로 자산가들의 의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조차 부호들의 비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심지어 일부 친일 부호배들은 군자금 헌납 권유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내막을 일정에 밀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대한광복회 지도부는 군자금 강제 모집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만주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박상진은 1916년 만주로 가서 권총

을 구입하여 갖고 들어오다가 서울에서 일정에 발각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총포화약령(銃砲火藥令) 위반으로 1917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로 옥고를 치렀다.

선생이 박상진을 만난 시점은 그가 출옥한 직후였고, 대한광복회 지도부가 조직 재건과 확대를 위해 애쓰던 시기였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선생과 대한광복회의 조직을 확대하려던 박상진은 의기투합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둘은 모두 의병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혁명적 투쟁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대한광복회 충청도지부장으로 임명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선생은 곧 지부의 조직과 확대에 힘을 쏟았다. 우선 친분이 있던 장두환을 가입시키고, 그로 하여금 천안, 아산 지역의 자산가 조사와 광복회원 모집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예산, 홍성, 청양 지역을 중심으로 친분 있는 인물들과 금령 김씨 문중 사람들을 상대로 광복회 가입을 권유하여 갔다.

선생의 노력의 결과 대한광복회 충청도지부는 홍성, 예산, 아산, 청양, 천안을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그 참여 인원은 60여 명에 달하였다. 참여 인물 가운데는 선생의 부친과 삼촌을 비롯한 문중사람들이 많았다. 또 선생 및 부친과 함께 홍주의병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 인물의 직업도 농업, 미곡상, 서당훈장, 갱부, 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특히 대한광복회가 공화정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주의병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이채롭다. 이는 김한중을 비롯한 척사유림들이 이 시기 이미 척사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병운동의 투쟁방략은 계승하고 있었지만, 그 운동이념만은 척사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근대적 민족주의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선생은 충청도지부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광복회의 독립전쟁준비전략을 실행하여 갔다. 우선 충청도와 경기도에 연락 거점을 마련하였다. 즉 예산, 연기, 인천에 곡물상을 개설하여 이를 광복회 본부 및 지부와의 연락 및 활동 거점으로 활용한 것이다.

나아가 선생은 군자금 모집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선생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충청도지부의 군자금 모금 활동은 먼저 배당금 통고문이나 고시문, 경고문을 발송한 뒤, 찾아가 의연금을 받아오는 형식이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일제측 문서에 따르면, 선생의 주관 아래 충청도 지부에서 발송한 고시문은 160여 통에 이르고, 군자금 모금액 또한 170만 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금 모집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선생은 박상진 등 지도부와 상의하여 극단적 처방을 강구하였다. 그것은 군자금 강제 모집을 결행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친일 부호배들을 처단하는 것이었다. 먼저 선생을 비롯한 지도부는 자산가들에게 광복회 명의

의 포고문과 배당금 통고문을 발송하고, 이를 일경에 밀고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친일 부호배들은 처단하도록 지령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박상진의 명령을 받아 악덕지주로 지탄의 대상이었던 경북 칠곡(漆谷)의 부호 장승원(張承遠)을 1917년 11월 10일 채기중, 유창순, 강순필, 임봉주 등으로 하여금 처단케 하였다. 이후 선생은 충청도지부에서 처단 대상으로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를 지목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기 때문이다.

도고면장 박용하는 통고문을 받고 이것을 헌병에게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박은 다시 부하 면서기 가족을 거지와 같이 만들고 전 면장을 옥사시킨 악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광복회를 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연금을 낼 리 없으므로 이 자를 살해하여 그밖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중략) 동면장이 악인인 증거는 첫째, 면장으로서 면민을 가혹하게 취급한 것, 또 하나는 면서기의 사택을 몰수하여 자기의 사택으로 하고 둘째, 전 면장의 공금 소비를 교묘하게 꾸며서 옥사케 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선생은 천안 읍내에서 박용하의 처단을 장두환에게 지령하자, 그는 김정태와 임세규에게 실행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1918년 1월 24일 김정태와 임세규는 선생과 장두환의 지령에 따라 박용하를 집으로 찾아가 처단해 버렸다.

이 일이 있는 직후인 1월 27일 선생은 조직이 탄로나 대한광복회 충청도지부의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후 선생은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사형을 받은 뒤, 경성복심법원과 대구 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4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음력 7월 8일, 38세 나이로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이와 같이 선생은 한말에는 척사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의병운동에 투신하여 국권회복운동을 펼쳤고, 이후 1910년대에는 점차 근대적 민족주의 이념을 수용,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선생이 이끈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헌병경찰제에 의한 일제의 폭압적인 무단정치가 자행되는 암울했던 시기에 폭력혁명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대다수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려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일만을 위해 민족성을 포기해 가는 친일 부호배들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족정기가 살아있음을 표출하였다. 더욱이 대한광복회의 의열투쟁 방략은 이후 암살단, 주비단, 의열단, 한인애국단 등으로 이어져 독립운동을 크게 발전시켜 간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점이 우리가 선생을 기리는 이유이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친일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정 희 상 기자
이 재 덕 인턴기자

광복 63주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을 하면 3대가 평평거린다’는 속설이 상식처럼 굳어져 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 <시사IN>은 이 속설이 믿을 만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실상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매국 조약 체결 등에 가담해 그 대가로 귀족 작위와 은사금, 은사 토지를 하사받은 매국형 친일파 10여 명과 그 후손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의 국회 격이라 할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참의를 지낸 상당수 친일파 후손도 살펴보았다. 대표적 친일파 명단을 놓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족보를 추적해 확인 가능한 후손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임시정부 요인과 기미독립선언에 참가한 33인 대표,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민족의 선각자들 후손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3대 이상 흥한 ‘대표 친일파’ 후손은 ‘대표 독립운동가’ 후손보다 훨씬 많았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흥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잖은 친일파 후손이 사회 각계에 포진해 대를 이어 기득권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선 매국 조약 체결 등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친일파부터 살펴보자. 구한말 군부대신으로 을사늑약을 조인하고, 1910년 한·일 병탄 조약 체결에도 간여한 을사오적 이근택의 집안은 대표 친일파 가계로 통한다. 그의 형 근호와 동생 근상이 함께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는데 습작자까지 합치면 조선 귀족을 6명 배출한 집안이다. 이 때문에 일제 식민지 지배 당시에도 독립지사들은 이근택 5형제를 ‘5귀’라 부르며 지탄했다.

1910년 한·일병탄 뒤 일본 정부에서 훈1등 자작을 수여받은 이근택은 작위를 아들 창훈에게 습작했다. 창훈의 두 손자는 광복 후 교육 분야에 진출해 활약해왔다. 1998년 세상을 뜬 맏아들 이상우씨는 공주대 총장을 역임했고, 동생은 현재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이다. 이근택의 형 이근호도 1910년 한·일병탄 조약 체결 공로로 남작 작위를 받아 매국형 친일파로 분류된다. 그의 후손은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 재산을 되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9건 낸 적도 있다.

교육계에 뿌리 내린 ‘자작 민영휘’ 후손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를 받은 친일파 중 교육 분야에 뿌리를 내린 또 다른 집안으로는 ‘자작 민영휘’ 후손을 꼽을 수 있다. 구한말 조선왕족이던 민영휘는 한·일병탄 직전 일제의 조선 병합을 지지하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친일 매국 단체 간부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했다. 그 공로로 병합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와 매국공채 5만원을 받았다. 초기에 관직을 이용해 모은 재물을 불려 일제 강점기 조선 최대 갑부 반열에 올라섰다. 귀족 출신으로는 드물게 대자본가로 변신한 민영휘는 일제하 권력형 부정부패 축재자로 분류된다.

민영휘의 후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자리한 휘문고교를 상속받았다. 민영휘의 증손 민덕기씨는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풍문여고를 세웠다.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민영휘의 증손자인 민인기씨가, 풍문학원은 고손자인 민정현씨가 각각 이사장을 맡았다. 현재 휘문고 교정에는 민영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다른 후손의 사회 진출도 화려한 편이다. 막내 아들의 장남인 민병도씨는 제일은행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다. 민병도씨의 장남 민웅기씨는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 유원지를 소유하고 있고, 둘째 아들도 기업체를 경영한다.

민영휘의 후손은 광복 뒤 이승만 정부에서 휘문의숙을 세운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민영휘를 친일파로 분류하는 데 불만이다. 그러나 일제 때 조선총독부도 교육 관련 표창장을 줬다는 점에서 그의 교육사업 진출이 친일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1907년 대한제국 군부대신을 지내다가 한·일신협약 체결로 군대 해산에 앞장선 이병무는 ‘정미칠적’으로 분류된다. 해산된 군대가 의병을 일으키자 강경 진압했던 이병무는 한·일병탄 때는 시종무관장으로서 병탄 조약 체결에 협조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병무의 자작 작위와 재산을 물려받은 이는 입양 아들 이흥묵이다. 이병무의 증손자 이진씨는 5공화국 때 12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태우 정부 초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환경처 차관을 역임한 그는 현재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이다. 그는 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강조하는 ‘친환경 경영체제’ 주창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경술국적’ 민병석 아들, 대법원장 지내

한·일병탄 조약 체결에 가담해 ‘경술국적’으로 불리는 민병석은 이완용과 처내종 간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을사늑약 이후 이토 히로부미와 깊은 교분 관계를 맺었던 민병석은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토가 쓰러지자 장례 조문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한·일병탄 공로로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이후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임한 대표 친일파였다. 큰 아들 흥기씨는 민병석의 자작 작위를 세습했고, 둘째 아들 복기씨는 일제 때 경성제대 법과를 나와

식민지 사법부에 진출했다. 민복기씨는 집안의 친일 행적과 상관없이 정부수립 후 제 5·6대 대법원장을 맡는 등 법조계의 거물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작고했다.

민복기의 세 아들 중 일본 히도쓰바시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장남 민경성씨는 일본계 기업체 사장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둘째 민경택씨는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등을 거쳐 변호사로 일하다 작고했다. 서울대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을 나온 셋째 민경삼씨는 기업인이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전권대신으로 조인을 총괄했던 박제순은 1910년 내부대신을 맡아 한·일병탄 조약 체결에도 앞장섰다. 그 공로로 훈1등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중추원 고문이 됐다. 박제순의 아들 박부양은 중추원 서기관이 되었고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과 나란히 조선 귀족 모임인 동요회 이사를 지내면서 일제 강점기 내내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의 아들 박승유씨는 서울대 음대와 미국 남가주 대학 음대를 졸업한 뒤 성악가로서 강원대 음대 교수를 역임했다.

조선 왕족의 종친 가운데도 구한말 귀족 작위를 받고 식민지 지배에 적극 협력한 사람이 있다. 이해승이 그런 경우다. 이해승은 한·일병탄 후 21세에 후작 작위와 매국공채 16만2000원을 받았다. 종친 가운데 일본 귀족원 의원을 지낸 이기용과 함께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등 적극 친일에 나선 이해승은 광복 후 반민특위에 끌려갔지만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다.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씨는 현재 서울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 회장 겸 동원 INC 회장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이해승이 친일 대가로 경기도 포천에 조성한 토지 약 200만㎡(시가 300억원대)를 국가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매국 조약 체결에 앞장선 친일파 후손 가운데는 멸문한 집안도 있다. 대한제국 법무형사국장으로서 명성황후 폐비 조치를 주도해 시해 사건을 돕고 10년간 일본으로 망명한 조중응이 그런 경우다. 일본에서 돌아와 이완용 내각 농상공부대신으로 한·일병탄에 앞장선 조중응은 그 공로로 자작 작위와 은사금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중추원 고문을 맡아 친일에 앞장선 조중응은 정실부인을 서울에 두고도 일본 여성과 도쿄에서 따로 결혼해 슬하에 자녀를 뒀다. 자식이 없던 서울의 정실부

인은 양자를 입적했지만 대가 끊겼고, 대신 일본 부인과 자녀가 조중응 사후 작위와 재산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매국형 친일파 중 당대에 쌍벽을 이루며 나라를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이완용과 송병준의 후손은 어떻게 지낼까.

구한말 내각총리대신으로 한·일병탄에 앞장선 매국노의 상징 이완용은 병탄 후 중추원 고문으로 백작 작위와 은사금 15만원을 받았다. 그는 1919년 3·1운동 때 “일선 동화의 결실을 손상하는 경거망동과 황당무계한 유언 선동을 중지하라”고 만세운동 비난 담화를 발표해 그 공로로 1920년 후작으로 승작했다. 1926년 이완용이 사망한 후 귀족 작위와 재산은 손자 병길이 습작했다.

이병길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이완용의 직계 종손인 이윤형씨가 상속권자다. 일제 때 일본인 고위 관료 자녀의 교육기관이던 경성제1사범대 부속학교를 거쳐 동성고교와 홍익대를 나온 그는 광복 뒤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1960년대 말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의 발탁으로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을 지냈다. 그 뒤 17년간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국내에 들어와 이완용 땅찾기 소송에 뛰어들어 한때 승소 판결로 수십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한편 이완용의 셋째 손자(이병길의 동생)인 이병주씨는 1962년 9월21일 일본으로 밀항해 들어가 일본 정부에 생활 보장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그를 귀화시키고 환대했다. 일본에 귀화한 이병주의 아들 이석형씨는 1979년 전북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뒷산에 있던 이완용 부부의 묘를 파내 화장해버렸다. 이완용의 관 뚜껑에는 일왕이 부여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위대훈위 우봉이공 지구(朝鮮總督府 中樞院 副議長 二位大勳位 牛峯李公之柩)’라 쓰여 있었다. 작업하던 인부가 이 관 뚜껑을 인근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전달해 한동안 역사 자료로 소장했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있던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 원광대 총장을 설득해 가져다 태워버린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친일 사학자라고 비판받던 고 이병도 박사는 이완용과 우봉 이씨 집안 친척이다. 고 이병도씨의 두 손자가 현재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과 이견무 문화재청장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의 오랜 땅찾기 작업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국가 귀속 조치로 현재는 주춤한 상태다.

송병준 후손, 집요하게 ‘땅 찾기’ 나서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던 매국노 송병준은 구한말 농상공부대신과 내부대신을 역임하며 한·일 병탄 때는 친일 매국단체 일진회 총재 자격으로 병탄에 앞장선 인물이다. 일제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왕실재산조사위원장을 맡아 전국 각지의 토지대장 수천만 평에 자기 이름 석 자를 세겨넣은 송병준은 1925년 뇌일혈로 숨졌는데, 재산과 작위는 아들 송종헌이 물려받았다. 송종헌 역시 중추원 참의를 지내면서 조선농업주식회사를 설립해 전국적 세도가로 행세했다.

그의 아들 송재구는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뒤 1930년 홋카이도에서 ‘조선목장’ 약 2640만 m²를 경영했다. 광복 후 송재구는 용인군 내사면 추계리 99칸짜리 저택과 전답을 긴급 처분한 뒤 서울로 피신했으나 반민특위에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49년 뇌일혈로 사망했다.

송재구의 아들이 바로 송돈호씨로 서울 역삼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인천·경기·강원 등지에 걸쳐 있는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을 주도하며 각종 사기 사건을 일으키다가 2007년 4월 구속됐다. 올해 초 보석으로 나온 송돈호씨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하는 등 여전히 송병준 땅 찾기에 집요하다.

친일 대가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은사금, 은사 토지를 받은 매국형 친일파 후손보다 광복 후 사회·경제적으로 더 강고한 기득권을 구축한 친일파 후손이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그룹이 그들이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중추원 참의는 1910년 한·일병탄 직후부터 임명되기 시작해 광복 때까지 70여 명이 거쳐갔다. 1910년 10월 초대 참의 임명자는 종신직이었지만 1921년부터는 3년 임기로 일제 식민지배 공헌도에 따라 돌아가며 역임했다. 오랜 친일 행적이 쌓여 공로를 인정받아야 참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친일파로 분류된다.

호남 지방의 대지주였던 김연수는 일제 때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경성방직을 경영했다. 친일 기업인으로 활동한 그는 1935년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경성방직 사장 직함과 함께 수록돼 있다. 1940년 중추원 참의를 맡은 김연수는 태평양 전쟁 때 거액의 국방헌금을 기부하면서 군수산업에 뛰어들었다. 이 기간 중 국민총력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국민의용대 등 친일 단체 간부로서 각지를 돌며 학병 지원 연설을 많이 벌였다. 광

복 뒤 반민특위에 체포됐다가 특위가 해체되면서 풀려난 김연수는 1961년 전경련의 전신인 전국경제협의회장을 맡는 등 재계 원로로 행세했다.

김연수는 7남6녀를 두었는데 장남 고 김상준은 삼양염업 명예회장, 차남 고 김상협은 16대 국무총리를 지내고 작고했다. 3남 김상홍은 현 삼양사 명예회장, 5남 김상하는 삼양사 회장을 맡고 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같은 신체시로 이름을 알린 육당 최남선도 중추원 참의 출신이다. 3·1운동 때 문화계 대표로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은 그 후 변절해 일제 식민사관을 유포하던 어용단체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했고,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최남선 역시 광복 뒤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처벌은 면했다.

최남선의 장남 최한웅 교수는 서울대 의대 소아감염학 권위자로 이름을 날렸다. 최남선의 맏손자는 피부과 전문의이고, 또다른 손자는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로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사업가로 명성을 떨친 문명기도 참의 출신 친일파로 분류된다. 제지업과 수산업, 금광 개발에 뛰어들어 부를 쌓은 그는 태평양 전쟁 때 국방헌금을 냈다. 아울러 조선국방비행 헌납회를 조직해 비행기 헌납운동을 벌이며 가미카제 특공대를 옹호하는 친일 활동을 폈다. 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함대를 물리치기 위한 일제 해군 ‘헌함운동’도 벌이며 앞장서 자기의 광산을 일제에 기부했다. 이런 공로로 1941년 중추원 참의가 됐다.

그의 맏손자인 문태준은 서울대 의대와 미국 토머스제퍼슨 대학원을 수료한 뒤 7대부터 1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남평 문씨 대종회장이다.

‘친일 내력’ 노출되는 정치권 진입 적어

정치인 가운데도 일제 시대 중추원 참의를 선조로 둔 이가 있다. 강릉 갑부로서 1936년 중추원 주임참의에 임명된 후 1941년 연임한 최준집의 아들 최돈웅 전 의원이다. 그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 자기 회갑연을 취소하고 국방헌금으로 1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매일신보에 보도될 정도로 일제에 충성했다. 그의 아들 최돈웅씨는 8·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의 대기업 상대 불법 선거자금을 거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특사로 풀

려났다.

재계의 거물 중 선대가 중추원 참의인 경우도 있다. 호남의 대표 친일 부호로서 1930년 중추원 참의가 된 현준호의 후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다. 1920년 호남은행을 설립해 대표를 지낸 현준호는 한때 민립대학 설립 등 민족교육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1930년 중추원 참의가 되고부터 지역 간척사업 이권을 따내는 등 일제와 밀착 행보를 보이며 민족운동과 결별했다.

현준호 역시 1935년 총독부 편찬 공로자 명단에도 올랐다. 중·일전쟁 발발 후 총독부가 조직한 시국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전쟁 지원을 역설했던 그는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징병제 홍보와 학병 지원 권유 등에 적극 가담했다. 현준호는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군에 피살됐다. 현준호의 후손은 대개 재계로 진출했다. 현우실업 대표인 현양래는 현준호의 손자이다. 현준호의 아들 고 현영원씨는 현대상선 회장을 지냈다. 현영원씨는 딸 넷을 두었는데 둘째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다. 현 회장은 1955년생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76년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과 결혼해 현대가와 혼맥으로 연결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현정은 회장의 어머니인 김문희씨의 동생이라서 두 사람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기도 하다.

친일파 후손의 사회 진출에서 특징은 학계·경제계·관료·문화예술 분야에 몸담은 이가 많은 점이다. 정치 분야 진출도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 수는 적었다. 이는 후손이 선거운동 등에서 자기의 집안 내력이 노출되는 정치권 진출을 꺼렸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들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이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잘나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조상의 친일 '덕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일제의 악랄한 탄압에 가산을 탕진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에 비해 친일파 후손은 선대가 만들어준 '요람'에서 근대적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거나 유산 상속 등으로 출발부터 남달랐다.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친일파 후손까지도 경제 형편은 유복한 편이었다. 아직도 조상이 친일 대가로 조성해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광복 63주년을 맞아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㉞

* 이 기사는 시사IN 제 48호(2008년 8월 16일)에 실린 특집 기사입니다.



쿠바를 다녀와서



김 자 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백범일지〉에는 조국광복을 위한 “美墨큐 각국한교들의 노력”에 언급한바 있었다. 하와이의 이민에 이어 1905년 1천여명이 멕시코(墨)로 이민간일이 있다. 그중 약3백명이 1921년 쿠바(큐)로 옮겨갔다. 이들 대부분은 적은 임금을 받고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상하이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에 성금을 모아보내 실제로 도움도 되었거니와 그 정성을 임정의 어른들이 늘 고맙게 여겨왔다. 정부에서는 1995년 광복절 때 쿠바에 있는 이들의 후손을 초청한바 있으며 2002년에는 항일투쟁에 기여한 몇분의 유해를 봉환하여 대전의 국립묘지에 안장한 일도 있다. 이들 후손들이 현재도 한인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국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오래전부터 한번 찾아가 만나보고 싶었다.

5월20일 아바나에 도착하여 무역진흥공사(KOTRA)의 알선으로 교민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교민 열분을 초대하여 저녁식사도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말을 아주 잘하는 통역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선조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임시정부에 기여한데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현재 쿠바에는 한인회가 있으며 등록된 한인은 9백여명이라고 한다. 반가운 일은 어디에서나 우리 한인들은 자녀의 교육에 주력했기 때문에 한국계 쿠바인들이 대부분 교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여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대부분은 다 혼혈이며 순수한국혈통을 갖은 사람은 70여명에 지나지 않은데 이날 저녁에 세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 중

한사람이 한인회 회장이다. 그 중 아버지가 두 살때 한국을 떠난 사람의 자녀인 2세중의 한사람도 참석했다. 그는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대접을 했다. 식사는 한식이었으나 양념이 없어 김치는 담글 수 없었다 한다. 무엇보다도 콩자반을 내놓았는데 우리 집에서 만든 것과 똑같았다.

물론 이들은 전부 쿠바시민이지만 조상의 나라를 여전히 그리며 지낸다. 아쉬운 것은 우리말을 거의 다 못하는 것이다. 그곳 한인들도 우리말과 글을 배울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60년대 초에는 북한대사관에서 초등학교를 운영하여 우리말과 글을 가르쳤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한다. 우리말 몇마디 기억하는 것도 대개 그때 배운 것이라 한다. 쿠바에는 외국인 학교의 설립이 쉽지 않으며 우리와는 국교가 없으니 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한된 문화교류는 아주 불가능하지 않을 듯하며, 이것을 통하여 단기의 우리말 교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쿠바에는 훌륭한 해변 휴양시설이 있어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아바나와 트리니다드 등 여러 곳에 스페인 통치 초기의 건물이 잘 보존·복원되었으며, 특히 아바나에는 박물관 여러 곳이 있다. 관광으로도 가볼만한 곳으로 생각된다. 어느 나라나 정부에 불만을 갖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생활이 여유없는 쿠바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의 인기가 높은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쿠바 어디를 가나 독립투쟁의 영웅인 호세 마르티의 동상을 볼 수 있으며 체게바라의 동상도 있다. 그러나 생존자의 동상을 세우는 법은 없다하여 카스트로의 동상은 전혀 없다.

정부에 반대하여 투옥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가족들이 매주 일요일 흰옷을 입고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마침 2, 30명되는 이들의 행렬을 볼 수 있었다. 언론기관은 전부 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의사표시는 상당히 자유스러운 것 같으며 감시가 보이지 않았다.

미국에 망명한 쿠바인들이 많으며 특히 혁명 후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 계속 반정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주한 쿠바인 전부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단순히 보다 많은 수입 때문에 건너간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며 미국으로 망명 혹은 이주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는 듯하다.

1주일 정도의 짧은 여행으로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자처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상이 내가 듣고 본대에서 느낀 것이다. ㉔



▲ 쿠바 한인들과



〈거친 녀석들〉과 〈발키리〉, 영화에 있어서의 역사



이 두 희 | 자유기고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2009)과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작전명 발키리〉(2008)는 모두 근래 만들어진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한 저항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다.

먼저 영화 〈거친 녀석들〉의 이야기는 몇 개의 절로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나치에게 가족을 잃은 유대인 소녀 쇼산나의 이야기와, 독일에 침투하여 게릴라전을 펼치는 유대계 미국인들의 특공대 ‘바스터즈’의 이야기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개는 영화의 종막, 점령된 파리

INGLOURIOUS
BASTEROS

▲ 쿠엔틴 타란티노의 거친녀석들 오프닝 화면

VALKYRIE

▲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발키리 오프닝 화면

의 한 극장을 배경으로 하는 키노(Kino) 작전에서 함께 만나고, 영화는 나치 수뇌부에 대한 화려한 복수극으로서 전쟁의 원흉들을 몰살시키며 2차 세계대전을 함께 종결시킨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가상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발키리>의 경우는 전쟁 중 독일 내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은 그 집권에서부터 패전에 이르기까지, 대외적으로 전 유럽을 상대로 한 침략전쟁이면서 자국 내의 끊임없는 권력투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히틀러에 대한 독일내의 정치적 군사적 반란의 시도 역시 여러 차례 있었다. 영화 <발키리>는 독일 군부 내에서 히틀러의 암살과 쿠데타를 기도한 한 젊은 장교의 이야기이다. 물론, 그의 성공여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두 영화는 우선 소재면에서 지난 2차 대전을 다루면서, 전쟁의 대략적인 흐름보다는 약간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전하고 있다.



▲ 나치에게 가족을 잃은 쇼산나는 필사의 탈출을 하여 후일 복수를 한다



▲ 유태계 미군들이 나치에 대항하여 '바스터즈'라는 특공대를 조직한다.

사실, 지난 20세기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세계 대전은 그 후 역사적 구도에 가져온 변화만큼이나 영화에 있어서도 큰 격변기를 가지고 왔다. 먼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화의 영향을 피할 수 있었던 미국은 전시경제의 부흥과 함께 산업으로서의 영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제 겨우 반백년의 역사를 지닌 영화는 예술로서의 유년기를 지나자마자 대표적인 쇼 비즈니스의 상품이 된 것이다. 한편, 유럽대륙으로서는 전쟁이 남긴 문화적 상흔과 함께 자기치유와 재생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남게 되었다. 이제 아무것도 기계

화된 전쟁과 대략학살 이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한편, 지난 20세기의 끝 무렵, 영화감독 고다르는 그의 작업 <영화사> 3부작을 통해서 지난 세기의 역사와 영화에 얹힌 복잡한 자기고백을 남긴 바 있다. 그 작업은 영화의 역사에 대한 연대기적 집



성이 아니었다. 그에게 영화사란 그가 보고 이야기하고 만들었던 영화들과 함께, 보지 못했던 그리고 만들어지지 못했던 영화들에 대해서도 역시 모두가 영화의 역사가 될 수 있음을 말했던 것이다. 고다르에게 영화의 역사란 어떤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못한 꿈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있었던 역사와 가능했던 역사를 우리는 모두 역사로서 사유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는 이러한 역사 '들'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 해왔다. 여전히 영화는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의 매개이면서, 또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거친 녀석들>과 <발키리>가 시사하는 또다른 의미가 있다.



▲ 영화 <발키리>는 독일 군부 내에서 히틀러의 암살과 쿠데타를 기도한 한 젊은 장교의 이야기다.

두 영화는 2차 대전과 나치즘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만약이라는 가정을 두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 과연 이 영화들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역사 혹은 역사적인 것, 영화라는 공간 안에서 이 둘의 구분은 어느 사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영화에 있어서 역사적인 것은 때론 역사에 대한 어떤 흔적, 이미지들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실제의 역사는 가려지거나 때로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이 되기도 한다. 영화 속 무수한 이미지들과 이야기 속에서 그것들은 각각이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로서 서로를 참조하며 하나의 자기완결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과 나치, 레지스탕스, 유대인, 영웅과 배신자, 잔인한 고문 혹은 불가능한 임무, 등등. 몇 가지의 관습적인 이미지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영화적 서술 구조에 섞임으로서 우리는 금방 하나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것으로도, 혹은 반역사적인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이미지들의 기능이자 존재, 그리고 그것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큰 이야기로서의 역사는 거대서사와 함께 조락하였고 이제는 수많은 역사적 요소들이 담긴 커다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무수한 재생산과 자기반복만을 뒤풀이 하는 이야기들만이 남은

것이다. (문화비평가 아즈마 히로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현대의 문화적 사회구조를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영화 <발키리>에서의 역사란 그것이 실제라는 고증을 통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려는 범용한 드라마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영화 <거친 녀석들> 역시 그저 짓궂은 감독의 진지하지 못한 장난과 유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저 비슷비슷한 그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역시 다른 고전 B급 영화들에 대한 수많은 참조와 함께 키치적 대중문화에 대한 감독의 애착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역시 극장에 모인 나치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학살이 가상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그럴듯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비평가의 말처럼 <거친 녀석들>에는 공상과학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 유대인에 의한 나치학살은 - 또 하나의 가능한 우주에서 벌어진 일종의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영화가 역사를 이와 같이 이야기적 요소로서만 참조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하나의 커다란 역사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역사적인 이야기라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옹호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허용되고 메시지는 스펙터클과 서로를 대체하고 정치적인 경험은 심미적 경험으로만 된다. 아직까지 관객들은 <발키리>와 <거친 녀석들>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고 즐기는 태도에는 점점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 <발키리>에서의 역사란 실제라는 고증을 통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려는 범용한 드라마의 한 가지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시대에 영화가 서있는 위태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통한 역사의 재생은 역설적으로 영화에게만 맡겨질 수가 없다. 그것은 한 사회의 문화적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한 작품이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영화는 그저 영화일 뿐일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한 새로운 영화란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중국유학 경험담〉 인민대학교에서...



최현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어느덧 여기 북경에 정착해서 '중국인처럼 되기' 시작한지도 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물론 방학 때 한 달이 채 못 되는 시간동안 귀국을 했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인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 그리고 언제나 중국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깨끗함과 단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지 어느 덧, 반년이 지나고 이제 대학생으로서의 북경유학생활의 종착역인 1년이라는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마치 임정답사단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이르쿠츠크까지 몇일 밤낮을 달리는 기차처럼 말이다...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려고 하니, 내가 서해를 건너 이곳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의 중심인 북경에 와서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또한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있는 인민대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거대 암석에 새겨진 글자 그대로 '실사구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예전 일제강점기 시절, 중국에서 오직 고국의 독립을 위해 먼 중국까지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숭고한 사명을 띄고 여기 북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난 이 곳 중국에서 무엇을 얻어가려고 온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날 번쩍 정신 들게 한 두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중국학생들과의 토론이었다.

난 지금 여기서 자신들이 중국내 랭킹1위라고 생각하고 또한 단과대 평가 전체 순위도 상위 5위안에 들어가는 상학원(商學院)에서 그리고 MBA 수업을 동시에 참여해서 듣고 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이 자유토론을 하던 중, 제작년 쓰촨성 대지진 이야기가 나왔다. 난 거기서 지진참사 후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민들과 함께하고, 인민들을 감동시켰는지 내 솔직한 느낀 점을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인 한마디는,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지도자가 이미 불행하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생을 마감했다고 아쉬움이 가득 담긴 채 말을 마쳤다. 중국학생들도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높아져서인지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와 더 나아가서는 근대의 역사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물론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또한 어떠한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나였지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는 왜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가 몇 안되는 것일까 하는 아쉬



움과 부끄러움이 교차되어 혼란스러웠다.

반만년의 역사라고 자랑하지만, 훌륭하고 진정 국민을 생각한 지도자들이 예전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최후를 보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을 때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저녁 늦게 기숙사로 들어오면서 탄 택시에는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다. 중국의 고대 역사를 설명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난 중국인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인이 자기나라의 역사, 그리고 깊은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서 하나둘씩 질문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과히 충격적이었다.

고구려, 발해는 물론 심지어는 일본까지 전부 자기네 역사의 범주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영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선조들께 너무 부끄러웠다. 난 그때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20분간 택시기사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바로 알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반크의 일원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역사 대표선수처럼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택시기사는 반신반의로 나를 바라보며, 차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수궁을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택시기사에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자기의 조국인 '중국'을 사랑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올바르게 사랑이 어떠한 처참한 상황을 가져오는지 역사적으로 익히 증명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랑이 하나둘씩 모여서 '큰 중국'을 만들어 냈다는 생각을 하니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지금 이글을 쓰는 이 순간,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위에서 말했던 고민의 해답을 어느정도 찾을 수 있었다. 난 외국에 나가있는 학생들이 모두 국가대표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외국인들과 세계는 우리나라를 이해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를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내가 여기 북경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뚜렷한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진리를 탐구해서 그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의 경쟁자들과 동반자에게 똑바로 전하는 實事求是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원칙이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나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올바른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세계에 올바른 대한민국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며 이글을 마칠까 한다. (㉠)





제6기 독립정신 답사단 사전워크숍 열려

오는 7월 출정을 앞둔 제6기 독립정신 답사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6월 28일(월)부터 이틀 간 진행된 사전 워크숍은 서울 대방동 여성가족재단에서 학생 답사단원 50여명과 일반 참가자,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이틀 동안 김광재 박사(국사편찬위원회)의 강의와 김선현 (주)오토 대표이사의 특강을 듣고, 독립군가를 배우는 등 답사에 필요한 기본강의, 정신교육, 답사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받고 필요한 답사 물품을 지급받았다.



제6기 독립정신 답사단 “광복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제6기 독립정신 답사단 “광복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중국 무한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번 답사는 구강, 부양, 임천, 개봉, 등봉, 낙양을 거쳐 서안에서 끝난다.

전국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50여명과 일반인 참가자 20여명으로 구성된 이번 답사단은, 임시정부의 국군이었던 한국광복군과 후일 광복군에 편입된 조선의용대의 당시 항일 투쟁경로를 따라가며,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볼 계획이다.

이번 답사단 단장 및 지도교수로는 이만열 명예교수(숙명여자대학교)가, 부단장으로 김광재 박사(국사편찬위원회)가 함께 한다.



창작판소리12바탕 첫 작품 판소리 '백범김구' 완성, 서거 61주기 추모 특별공연

창작판소리12바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도현 前문화부차관)는 새로운 창작판소리 12바탕중 첫 번째 작품인 '백범 김구'를 백범 서거 61주기를 기리기 위해 지난 6월 26일(토) 서울 효창동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추모공연을 가졌다.

이 작품은 김구재단(이사장 김호연)의 지원으로 제작되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시연과 실연을 거쳐 한국현대사 연구자 및 판소리 전문가의 평가와 토론을 통해 다듬어왔다. 지난해 6월 서거 60주기를 맞아 창작 작업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이다.

백범의 생애를 다룬 이 작품은 1부 '청년역정', 2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3부 '해방시대'까지 총 3부로 구성, 왕기철·왕기석 형제명창과 임진택 광대가 소리를 맡아 3시간에 걸쳐 완창하였다.

한편 민족의 아픔을 비장한 각오와 해학의 웃음이 담긴 창작판소리로 승화시킨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작품의 특별공연에 앞서 추진위는 오후 3시부터 백범 선생 묘소(효창동 효창원) 앞에서 '창작판소리 백범김구'의 '창본(사설)'과 '소리'를 헌정하는 행사도 가졌다.



「독립정신」 산악회

지난 5월 22일(토) 독립정신 산악회가 관악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김원규 산악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 날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독립정신을 발휘하여 무사히 산행이 이루어질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토)에는 34회 독립정신 산악

회가 창경궁과 종묘 답사를 다녀왔다. 서울반야라이온스클럽의 산악회(산악회장 이영준)와 함께한 이번 답사는 우리 독립정신 산악회와 타 산악회간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7월 독립정신 산악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독립정신 답사단 행사로 대체된다.



백범 김구 선생 61주기 추모식 26일에 거행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 61주기 추모식이 26일(토)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되었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김신)'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추모식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김양 국가보훈처장,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승병일 광복회 부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백범 선생은 의

병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전개하다가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 국무령, 주석 등을 역임했다.

8.15광복을 맞아 환국해 반탁운동과 남북연석회의 참가 등 민족이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제55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제55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무위원, 보훈단체장,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전몰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인터넷으로 신청한 시민 등 5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춘 1분간의 묵념에 이어 헌화, 분향, 추모공연,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

화하고 모든 부문에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영상 헌시는 '2010년 보훈문예물' 최우수

작인 노호성(41)씨의 '당신들의 이름은 불멸입니다'를 국가보훈처 홍보대사인 텔런트 양미경(49)씨가 낭송했다. 추모공연에선 추모곡 '조국의 품에서 고이 잠드소서'를 박연합창단과 인천오페라합창이 불렀고 최창덕무용단이 무용을 선보였다.



▲ 제55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완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지난 6월 7일(월) 백범기념관 대회의장에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전 60권 완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2005년 광복 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한국독립운동사의 역사” 60권 발간사업을 완료하는 의미의 학



술심포지엄으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 김주현 독립기념관장의 개회사와 김양 국가보훈처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완간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이만열 한국독립운동의역사편찬위원장의 기조발표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정립(발표한시준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장석홍 국민대학교 교수), 독립운동사 연구의 발전(발표 김희곤 안동대학교 교수, 토론 김영범 대구대학교 교수), 독립운동사 연구의 분화(발표 장규식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김형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를 발표 및 토론을 하였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시리즈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었던 독립운동 관련 연구성과를 망라한 학술 연구서로, 조동걸 국민대 명예교수의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을 첫 권으로 해서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한국독립운동사 연표>를 마지막 권으로 하는 이번 시리즈는 개항 이후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자행된 무단통치, 의병과 의열투쟁, 국내외 독립운동, 여성·청년·언론·교육·문화예술운동과 종교계 운동까지 독립운동사를 총망라했다.

김자동 회장 KBS 제1라디오 ‘지금은 실버시대 - 일요초대석’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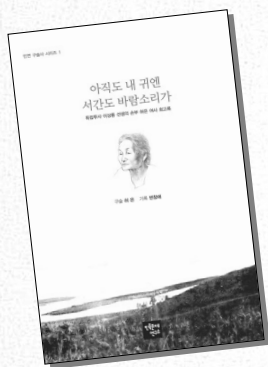
지난 6월 6일(일) 오전 4시 KBS 제1라디오에서 방송하는 지금은 실버시대(진행 지영서 아나운서)에 본회 김자동 회장이 출연하였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서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택했던 선열들을 기리는 현충일을 맞아 기획된 이번 방송은 김자동 회장의 개인사와 직접 겪었던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 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 회고록



이 책을 구술한 허은 여사는 1915년 아홉 살 어린 나이에, 만주로 망명한 허씨 일문을 따라 만주 영안현으로 이주했다. 열여섯 살이던 1922년 고성 이씨 집안으로 출가하여 1932년 시조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거로 귀국할 때까지, 석주 선생과 시아버지 동구 이준형 선생, 그리고 남편 이병화를 뒷바라지하며 만주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온갖 고난을 함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책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생생한 회고담을 남겨 1995년 7월『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라는 제목으로 초간되었다.

이 책에는 매년 8월 29일 국치일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 망국을 주제로 한 연극을 보고 국치일 노래를 목 놓아 불렀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열여섯 나이에 영안현 철령하에서 화전현 완령허까지 아버지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이천팔백 리를 꼬박 열이를 걸려 시택에 도착한 일, 이천천 신숙 황학수 이범석 등 당대의 지사들이 참석한 서로군정서 회의에 대한 목격담, 석주 선생이 임시정부 국무령을 사임하고 상해에서 돌아올 때 변복·변장하여 왜경의 감시망을 뚫고 무사히 도착한 일화, 석주 선생 서거 후 귀향길에 중국군 패잔병들에게 갇은 곤욕을 치른 끝에 선생의 유해를 화전현에 가매장하고 밤길을 타고 어렵게 귀환한 비사 등 독립운동 명가의 역경을 짐작하게 해주는 눈물겨운 증언들이 낱낱이 담겨있다.

1932년 허은 여사는 ‘고택제향(古宅祭香)에 호화반석(豪華磐石)’ 같은 고성 이씨 가문의 종부

(宗婦)로서 '이역만리(異域萬里)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 하다가 안동 임청각으로 귀향했지만, 가산은 독립운동에 이미 소진한 뒤라 시부모 봉양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빈한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45년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은 이루어졌으나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독립운동세력은 어처구니없게도 탄압과 홀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6.25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마저 유명을 달리하자 가세는 더욱 기울어져 갔다. 그러나 허은 여사는 고립무원의 지난한 처지에서도 좌절을 딛고 일어서 7남매를 올곧게 키우는 데 힘썼다. 그러던 중 1962년 석주 선생께 건국훈장 독립장이, 1990년 시아버지께 건국훈장 애국장이 남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아울러 같은 해 일가인 이승화 이봉희 이상동 이광민 이운형 이형국 선생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훈장이 추서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 명문으로 공인되었지만 안살림을 전적으로 책임졌던 허은 여사는 서훈의 영예도 사적에 기록되는 영광도 누리 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지나온 구십 평생 되돌아봐도 여한은 없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고달픈 발자국이었던 하나 큰일하신 어른들 생각하면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다."라며 겸손해했다.

2008년 초 허은 여사의 다섯째 아들인 이향증 선생이 고인의 회고록『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개정판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내면 어떻겠냐는 의향을 비쳤다. 이향증 선생은 연구소 2대 이사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고 조문기 선생과 교분이 깊었고 1999년부터 회원으로 가입하여 연구소 활동을 적극 지지 성원해 온 인연도 있다. 연구소는 보기 드문 독립운동 증언록인 이 책을 재출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록자인 변창애 선생도 흔쾌히 동의하여 출판계약이 이루어졌다. 진작 작업을 끝내야 했으나, 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작이 미루어지다가 이제야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허은 여사의 구술체를 가능한 한 살리는 것을 편집원칙으로 정하고, 지명과 인명 등 문헌자료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만을 바로잡았으며 의미 전달이 불명확한 곳은 현대어법에 맞게 약간 손질했다. 초간본에 실린 사진화보와 추가로 발굴된 관련자료를 본문 안으로 배치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편집자 주로 처리했다. 또 이향증 선생이 쓴 「나라사랑을 실천한 충절의 현장 임청각」을 부록으로 편성했다.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고난과 극복으로 점철된 우리 근현대사를 되새겨 보게 하는 시점에 뜻 깊은 책을 간행하게 되어 연구소로서도 보람이 크다. 이 책이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등 사회 일각에서 자행되고 있는 역사왜곡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0년 4월, 5월, 6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4월	5월	6월	회원명	4월	5월	6월	회원명	4월	5월	6월	회원명	4월	5월	6월
김만길	10,000	20,000	10,000	노영택			20,000	윤여천			10,000	정원기	10,000	10,000	10,000
강재욱	30,000	10,000		노용래	30,000	30,000		윤지현			10,000	조기식	20,000	10,000	10,000
공성진			20,000	류동연	5,000	5,000	5,000	이규중	30,000	30,000	30,000	조명숙	10,000	10,000	10,000
공성원	30,000	30,000	30,000	류시경	30,000	30,000		이규호	30,000	30,000	30,000	조세현	20,000	20,000	20,000
곽태원	50,000	50,000	50,000	문재선	30,000			이기범			10,000	조영빈	5,000	5,000	10,000
광복학생십사대			30,000	민항선	10,000	10,000		이두엽	20,000		20,000	조용준	30,000	30,000	30,000
권순갑	20,000	20,000	20,000	박경국			10,000	이두희	30,000	30,000	30,000	조용환	30,000	30,000	30,000
권영관	10,000	10,000	10,000	박녹삼	10,000	10,000	10,000	이병규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10,000
김경애	10,000	10,000	10,000	박두근	10,000	10,000	10,000	이상준	200,000	200,000	200,000	조정훈	30,000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30,000	박이영	10,000	10,000	10,000	이성배	10,000	10,000	10,000	조희환	10,000	10,000	
김광선			10,000	박원표	50,000	50,000	50,000	이신재		120,000		주세영	30,000	30,000	30,000
김광재	10,000	5,000	5,000	박은불	30,000	30,000	30,000	이영국	10,000	10,000	10,000	주철기	30,000	30,000	30,000
김도현		20,000	20,000	박의란	30,000	30,000	30,000	이영춘	30,000	30,000	30,000	전정배	10,000	10,000	10,000
김동완	10,000	10,000	1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30,000	최문순	10,000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박창근	30,000	30,000	30,000	이영규	10,000	10,000	10,000	최영진	10,000	10,000	10,000
김범준			10,000	박종기			10,000	이원희	100,000	100,000	100,000	최인국	10,000	10,000	10,000
김보성	10,000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5,000	최정식	10,000	10,000	10,000
김선근	10,000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30,000	최정호	10,000	10,000	10,000
김성곤		2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재선	5,000	5,000	5,000	하수정		10,000	10,000
김수정	50,000	50,000	50,000	서영훈	30,000	30,000	30,000	이정재	150,000	50,000	50,000	한진숙			10,000
김영림		60,000	30,000	서훈관	30,000	30,000	30,000	이종건			10,000	함세웅	30,000	30,000	30,000
김용덕		20,000	10,000	석규관		10,000		이종락	30,000	30,000	30,000	허석원		35,000	5,000
김원규	10,000	10,000	10,000	석미화	10,000	10,000	10,000	이창복	20,000	20,000	20,000	홍순권	10,000	10,000	10,000
김원규	50,000	50,000	50,000	성인재학위	100,000	100,000	100,000	이창중			20,000	황용만	5,000	5,000	5,000
김위	20,000	10,000	20,000	송재웅	30,000	30,000	30,000	이혁효	10,000	5,000	5,000				
김위현	50,000	50,000	50,000	신명식	10,000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30,000				
김지동	100,000	100,000	100,000	신명연	10,000	10,000	10,000	이호현	20,000	20,000	20,000				
김재홍	10,000	10,000	10,000	신준수	20,000	20,000	20,000	이화순	30,000	30,000	30,000				
김정욱	50,000	50,000	50,000	심재권	30,000	30,000	30,000	인순창	30,000	30,000	30,000				
김종배	20,000	20,000	20,000	안명찬	5,000	5,000	5,000	임삼조			10,000				
김중숙	10,000	10,000	10,000	엄근학	10,000	10,000	10,000	임재경	5,000	5,000	5,000				
김진경	5,000	5,000	5,000	엄기남	50,000	50,000	50,000	임정대		30,000	30,000				
김지모	20,000	20,000	20,000	염승훈			10,000	임진택		55,000	5,000				
김지영	10,000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10,000	장문호	10,000						
김진현	50,000	50,000	50,000	오은주	20,000	20,000	20,000	정은기	20,000	20,000	20,000	회원명	4월	5월	6월
김하근	10,000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20,000	장필순	10,000	10,000	10,000	주호도 오티오	6,000,000	6,000,000	6,000,000
김호진	10,000	10,000	10,000	우상호	30,000	30,000	30,000	장 홍	20,000	20,000	20,000	주이복칼강	2,000,000	2,000,000	2,000,000
김희선	10,000	10,000	10,000	원영애		30,000		정종익	30,000	30,000	30,000	김선현	3,700,000	2,000,000	2,000,000
김형시			100,000	유수아			10,000	정민기	30,000	30,000	30,000	해운대문화재단	3,000,000		
남민우	30,000	30,000	30,000	유원목	20,000		20,000	정범구	30,000	30,000	30,000				
노시선	30,000	30,000	30,000	윤경자	30,000	30,000	30,000	정철승	30,000	30,000	30,000				